

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현장 안정 최우선' 추진

정책토론회서 인사 운영·지역 인재 양성 위한 조례 구체화 논의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실질적 운영 지침이 될 자치법규(조례·규칙)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교육청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에 앞서, 교육 분야 핵심 특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구체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안정적 교육행정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각 분임은 특별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안정 방안을 다뤘다.

분임 토론에서는 ▲ 자율적 조직 운영 ▲ 인사 운영 체계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교육 등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특별법 조항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조례 반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통합 이전 임용



전남교육청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 보장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과 광주·전남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두 기관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명확한

행정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림을 채우는 힘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면서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

한 처우'에 두고, 현장에서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도출된 제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자치법규 제정 및 광주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해 잇단 발견에 '전면 재조사' 촉구

국토부·수사기관 면담 "조사 방식, 주체 하루빨리 결정하라"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와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족 10여 명은 전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인근을 둘러보다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

이 물체들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외곽을 살펴본 중 발견한 것이다. 현장 주변 항행안전시설 철조망 안팎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와 유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해 추정 물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 추정 물체가 발견된 지점은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 끝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한 뒤 폭발하며 동체가 담벼락과 부딪힌 곳이다.

전남경찰청은 물체가 발견된 현장 인근

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만 허용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유해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조사 주체·방식 등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과학수사대는 지난달부터 활주로 주변에 흩어진 잔해물을 컨테이너 4동에 옮겨 분류·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 64점 중 9점이 실제 유해로 확인됐으며, 유류품 수천 점이 담긴 700여 묶음과 휴대전화 5대가 수습됐다. 뒤늦은 유해 발견이 이어지자 정부 차

원의 책임자 문책 지시도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방치된 데 이어 뒤늦게 추가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도 국토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가족이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직접 발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철조망 안에는 큰 유해들이 그대로 있다"며 "초기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재조사 결정과 방식, 주체에 대해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경찰, 하교시간대 스쿨존 음주단속... 18일 실시

이들의 하교시간과 겹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을 추진한다.

개학기 교통안전 중점 관리 대상 초등

학교 19곳 가운데 5곳을 선정해 경찰 오토바이와 양행순찰차, 교통경찰 등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단속과 홍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중학생 60만원·고교생 100만원... "꿈드림이 바꾸쳐" 올해부터 모든 중·고 학생에 확대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림이 바꾸쳐 사업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꿈드림이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중학생 최대 60만원, 고등학생 최대 10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지원한 수학여행비,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별 바꾸쳐 포인트로 산정하고 연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동시 접속에 따른 신청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1학년은 25일, 2학년은 26일, 3학년은 27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이 지나더라도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학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바꾸쳐 지원을 받은 학생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학생·학부모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바꾸쳐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바꾸쳐 포인트는 교재·도서, 학습품 구입비, 대학 입학원서비 등 다양한 교육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가 자격증 응시료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진학 활동을 지원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꿈드림이 바꾸쳐가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지원이 확대된 만큼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광주소방 "특정물품 구매 강요 안해... 반드시 사실 확인해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6일 광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10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

원에는 '숙박업소에 질식사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본부 직원 사칭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발신자는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질식사화포 미비치시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허위 내용을 안내했다. 고시원 관계자는 이 전화를 받고 질식사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가 소방서에 관련 법령 확인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발생이 확인됐다.

광주소방은 이 사건을 공무원 사칭 범죄

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최근 들어 광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유사한 수법의 공무원 사칭사기 의심 신고는 6건이다.

지난 9일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시설에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숙박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이어 10일에는 동구 금동 한 호텔에 소방본부 사칭 전화가 걸려와 '층마다 질식 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무원은 전화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주시, 전기굴착기 보조금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규격과 성능에 따라 대당 940만~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17일부터 4월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여러 대의 전기굴착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광역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굴착기는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폐차하거나 수출 등으로 말소하려면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또는 5년 이내 수출 말소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오철수 기자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멍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